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1월 15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표선농협 새해농업인 실용교육-9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표선농협 감귤 재배기술 영농교육 실시-12면	동부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주간농사정보-13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농자재 가격 급등에 ‘시름만’ ... 필수 농자재 조례 제정 촉각-1면	-	제주매일
○	작년 제주농촌 외국인근로자가 일 다했다-6면	-	제주매일
○	농가, 결국 무밭 갈아엎기로-1면	-	제주일보
○	고품질 생산·유통 혁신 집중 투자-3면	-	제주일보
○	“감귤 말고 바나나 키워볼까?” -6면	-	한라일보
○	제초제는 풀도 미생물도 사람도 죽인다-15면	-	한라일보
○	감자 수확하기 좋은 날-6면	-	한라일보

(제민일보: 2024년 1월 15일)

○ 표선농협 새해농업인 실용교육-9면



표선농협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표선농협 (조합장 김용우)은 최근 NH농협은행 제주수련원에서 조합원 등 생산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귤 재배기술 영농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지감귤과 만감류 온도·습도 조절, 관수 관리, 병해충 관리, 수확기술, 원관리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민일보 9

(한라일보: 2024년 1월 15일)

○ 표선농협 감귤 재배기술 영농교육 실시-12면



표선농협 감귤 재배기술 영농교육 실시

서귀포시 표선농협 (조합장 김용우)은 지난 11일 NH농협은행 제주수련원에서 조합원 등 생산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귤 재배기술 영농교육을 실시했다. 한라일보 12

(제민일보: 2024년 1월 15일)

○ 주간농사정보-13면



주간농사정보

◆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안내

□ 만감류

- 최대한 자연온도 유지, 야간온도 0도 이하 예보 시 축창 닫기
- 열풍기가 있는 경우 최저온도 2도 내외로 설정
- 정기적인 품질조사 후 관수량 조절하기

□ 노지감귤

- 수확 완료 과원은 기온 10도 이상 따뜻한 날 엽면시비

- 요소 0.2~0.3%액 7~10일 간격으로 2~3회

□ 양채류

- 도둑나방,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및 노균병 방제

□ 당근

- 다습한 날 아침이슬 발생 시 검은잎마름병, 점무늬병 발생 주의

□ 월동무

- 월동 후 수확 예정인 포장은 습해 관리에 유의

□ 구마늘

- 1~2월 흑색썩음균핵병 주 발병시기로 예찰 방제 필요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 760-7531-37

1.15.
제민일보 13

(제주매일: 2024년 1월 15일)

○ 농자재 가격 급등에 ‘시름만’ … 필수농자재 조례 제정 촉각-1면

농자재 가격 급등에 ‘시름만’…필수농자재 조례 제정 촉각

전쟁 등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비료·사료 등 원자재 가격 급상승
타 지역 생산비 지원 정책 마련…전문가 “농가경영 위협 대책 시급”

농업 환경을 둘러싼 환경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농산물 가격 널뛰기는 반복하면서 농가경제를 영위하는데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사를 짓는 데 꼭 필요한 농자재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농민들은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 환경 악화를 가속화해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급증한다”고 주장하며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농가부채는 2022년 기준 9165만4000원으로 전국 최고 규모이다. 제주도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 3502만2000원보다 2.6배가 더 많다. 특히 지난 5년 전과 비교해도 도내 농가부채의 증가율은 전국평균 보다 높았다. 전국 평균 농가부채가 5년 전에 비해 5.3% 증가한 반면, 제주도 농가부채는 같은 기간 22.9% 증가했다.

도내 주요 작물 생산비는 2019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맥주보리, 월동무 등의 작물을 제외한 대다수의 작물 생산비가 3년 전에 비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별 증가율은 봄감자 12.9%, 가을감자 12.7%, 노지수박 14.0%, 당근 13.9%, 양배추 10.2%, 브로콜리 3.5%, 쪽파 131.1%, 풋마늘 15.3%, 구마늘 22.3%, 조생양파 39.1%, 노지감귤 7.7%, 참다래 21.9% 증가했다. 시설작물인 경우에는 투입되는 생산비용도 막대한데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설감귤 26.5%, 하우스 월동감귤 16.2%, 한라봉 13.5%, 천혜향 14.4%, 레드향 13.4%, 황금향 31.7%로 급증했다.

일본과 미국 등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지자체도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충남 공주시는 2023년 10월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

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용인시,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남 등에서도 생산비(조사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현재 생산비 증가와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농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곤경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문제는 농민 개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끝까지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선 단기적으로는 생산비 증가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 경영 위험에 대응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후 재난의 증가를 대비할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병근 기자

(제주매일: 2024년 1월 15일)

○ 작년 제주농촌 외국인근로자가 일 다했다-6면

작년 제주농촌 외국인근로자가 일 다했다

도, 6만8101명 지원…목표 4만1000명 比 166% 초과 달성
올해 계절근로자 등 총 7만2000명 지원해 일손 부족 해결

지난해 감귤수확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도 한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고령화 등으로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농촌지역에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와 농업중앙회 등이 주관하는 농촌인력증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대학생 농촌사랑봉사단, 계절근로자 등을 통해 총 6만8101명을 지원

이 같은 실적은 지난해 목표 4만1000명 보다 166%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은 3만1200명(45.8%)으로 지역농협이 주관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까지 감안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인력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 같은 결과는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다.

행정시가 운영한 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3만209명이 농촌현장으로 파견됐고 농촌인력증개센터를 통해서 4541명이 농번기 일손을 덜어내는 효과를 냈다.

도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75.5% 증가한 영농인력 7만2000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인력수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올해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만 명의 유·무상 인력을 지원하고 농촌인력증개소는 6000명의 인력을 지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서 1만 명의 일손을 확보하

고 외국인근로자 2만5000명, 대학생 봉사단도 1000명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12일 행정시와 농업중앙회 제주본부, 2024년 농업인력지원사업 선정 지역농협 등이 참여하는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농촌지역 인력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농촌인력증개센터는 기존 김녕농협 1곳과 더불어 올해 고산·한림·표선농협 3곳, 농업중앙회 제주본부까지 총 5곳을 운영할 예정이며 농협에서 고용해 농가에 배치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올해 고산·대정농협까지 확대해 기존 위미농협과 3곳이 운영한다.

한편 제주도는 올 상반기에 902명을 배정해 만감류 수확과 마늘수확 일손을 지원한다.

한애리 기자

(제주일보: 2024년 1월 15일)

○ 농가, 결국 무밭 갈아엎기로-1면

농가, 결국 무밭 갈아엎기로

올해산 월동무 자율 폐기 143농가 181.5ha로 나타나

제주월동무연합회 오늘 난산서
월동무 경운작업 시연회 열기로

제주산 월동무 가격이 계속 떨어지자 농가들이 애써 키운 작물을 갈아엎는다.

사단법인 제주월동무연합회(회장 강동만)는 최근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2023년산 월동무 자율 폐기 신청을 받은 결과, 143농가가 181.5ha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농가 수와 면적은 청산읍이 83농가 111ha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구좌읍 43농가 55.1ha, 표선면 11농가 9.7ha, 대정읍 4농가 4.3ha, 고산리 1농가 1.2ha, 함덕리 1농가 0.2ha 순이다.

이번에 자율 폐기하는 1.15%는 약 48억원 어치로 추산

2023년산 제주 월동무 20kg들이 상품 1상자의 지난해 12월 가락농수산 물종합도매시장 평균 경락가는 1만367원으로 손익 분기점을 밑돌았다. 이는 전년도 대비 13.1%, 평년 대비 10.3% 하락한 것이다.

더욱이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평균 경락가는 9276원으로 더 떨어졌다.

파종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수확 시기가 겹친 데다 지난해 태풍 영향도 없어 작물이 빨리 비대해지며 상품성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 침체까지 영향을 미쳤다.

2023년산 월동무의 농가 손익분기점은 1만1550원으로, 하락세가 계속되면 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 드론 관측 조사 결과 2023년산 월동무 재배면적과 생산

량은 5435ha, 36만1884t에 이른다.

전체 예상 생산량 가운데 현재까지 약 7만t이 출하됐고, 약 28만t이 남은 것으로 추산됐다.

제주에서는 월동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별다른 작물이 없어 최근 5년간 과잉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월동무연합회 관계자는 “과잉 생산 고착화에 더해 재배 기술의 발달로 태풍이나 한파 등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도 줄어 자연적인 수급 조절마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월동무연합회는 15일 서귀포시 청산읍 난산리에서 월동무 자율감축 경운작업 시연회를 연다. 이후 19일까지 자율 감축을 신청한 회원들의 무 경작지를 방문해 자율 폐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진주리 기자

(제주일보: 2024년 1월 15일)

○ 고품질 생산·유통 혁신 집중 투자-3면

고품질 생산·유통 혁신 집중 투자

도, 올해 감귤산업 311억 투입...미래 기본구상·정책 방향 수립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조성과 농산물 유통 혁신 등을 위해 311억원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더 나은 미래 감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총 33개 사업에 311억1800만원을 투자하고, 미래 감귤산업 기본구상 및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감귤가격을 유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 생산하는 한편 물류 비용 절감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감귤원 2분의1 간벌, 차세대 경제과원 전환 지원, 생육 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풋갈 유통 활성화 등 13개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한다.

제주일보 3면 출하 물류비 부담 경

감을 위한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에 35억원, 농산물 전국 분산 출하를 위한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 사업에 37억원, 고당도 감귤 선별을 위한 광센서선별기 지원 등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14개 사업에 259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와 함께 감귤과 월동채소 품목(품종)별 출하 시기에 맞춰 전 국민 대상 소비 촉진 홍보 사업, 도매시장 중심에서 온라인 산지전자거래 확대를 통한 유통체계 다변화를 위해 제주농산물 산지전자거래(직배송)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한다.

제주도는 미래 감귤산업 기본구상이 수립된 지 5년이 경과함에 따라 환경 변화와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5개년 평가 및 기본구상과 정책방향

을 재정립하는 원년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감귤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조수입 목표 등을 점검해 지속발전 가능한 감귤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학계, 생산자단체, 농가 등 감귤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감귤산업 추진단과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감귤 신품종 특성 등을 반영해 당도(맛) 중심의 품질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다.

특히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는 유통업자와 선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재병 기자

(한라일보: 2024년 1월 15일)

○ “감귤 말고 바나나 키워볼까?” -6면

“감귤 말고 바나나 키워볼까?”

제주도 온난화 대응 및 신 소득작물 도입 지원
아열대 과수 작목 전환·레몬하우스 농가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는 신 소득작물 도입을 지원하고 기타 과수 선도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기타 과수 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를 23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기후 온난화와 수입시장 확대 등에 대응해 감귤 품목을 대체하는 경쟁력 있는 신 소득작물을 도입하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감귤 재배 농가 중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용과 등 아열대 과수로 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와 레몬하우스 시설 재배 농가이다.

아열대 과수 작목 전환 재배 농가에는 비가림 하우스와 보온커튼 시설을 지원하고 레몬하우스 시설 재배 농가에는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등 1.15.현대화 시설·장비 중 1개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1억7500만원으

로 60%가 보조된다. 신청장소는 과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이다.

기타 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감귤류 외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로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정액 지원하며 포장재는 포장상자, 소포장 플라스틱 용기만 해당되고 농가당 2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기본 구비서류 외에 기타 가점 서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별 지원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제초제는 풀도 미생물도 사람도 죽인다-15면

전 세계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청
경재배 과수원은 없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안다. 잡초가 없는 사
과 과수원은 없다. 배 과수원도 없
다. 복숭아 과수원도 볼 수 없다.
과수원은 초생재배가 당연하다. 과
수원에 1.15% 없어지면 득보다 실
이 **한라일보 15**이다.

제초제는 풀도, 미생물도, 사람도 죽인다

십여 년 전에 영국에 제주 감귤을 수출할 때이다. 제주를 방문한 영국의 감귤 수입 담당자가 청경재배 감귤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잡초 없는 감귤원을 처음 봤기 때문이다. 전 세계 모든 감귤 나무 밑에는 잡초를 키운다.

제초제를 치면 미생물이 죽느냐고 물어보는 농가가 많다. 농약은 모두 토양 미생물에 해롭다. 살균제는 제초제보다 미생물을 더 잘 죽인다. 그러나 제초제는 미생물을 직접 죽일 뿐만 아니라 잡초를 죽여 미생물의 먹이까지 없애 굶겨서 완전히 죽인다.

미생물은 질소와 탄소(탄수화물)를 주식으로 먹는다. 질소는 토양에서 빨아먹는다. 탄수화물은 잎이 주는 것을 먹는다.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탄수화물은 잎이 광합성으로 만들어서 체관을 통해 뿌리

로 주는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미생물은 뿌리에 가까울수록 많다. 뿌리가 없으면 굶어 죽는다.

뿌리에 붙어서 공생하는 미생물이 근균(根菌)이다. 뿌리에 붙어 균사를 내놓고 마치 뿌리털이 연장된 것처럼 양분을 흡수해서 뿌리에 전달한다. 양분을 받아먹은 뿌리는 그 대가로 뿌리에 탄수화물을 공급한다. 그래서 뿌리와 미생물은 공생한다.

미생물이 많으면 흙도 좋아지고 과일 품질이 좋아진다. 반대로 미생물이 없으면 과일 품질이 낮아진다. 과학적으로 토양의 건전성을 미생물의 숫자로 표현하기도 한다. 토양 미생물이 많으면 건강한 토양으로 평가한다. 미생물이 적은 토양에서 좋은 과일을 기대할 수 없다.

제초제는 풀을 죽이는 농약이다. 살충제는 해충을 죽인다. 살균제는 병균을 죽인다. 풀, 해충, 병균 중에

사람과 비슷한 기작으로 죽이는 것은 살충제이다. 그래서 살충제 독성이 가장 높다.

살충제를 잘못 먹었을 때 빨리 위 세척하면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제초제를 잘못 먹으면 절대로 살릴 수 없다. 먹자마자 입에서부터 흡수되기 시작해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이다.

살충제는 피부에 묻어도 물로 씻으면 씻겨 나간다. 제초제는 피부에 묻자마자 몸 안으로 흡수된다. 감귤원에 제초제를 사용하면 내 몸에도 제초제를 뿌리면서 피부로 먹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잡초가 있는 감귤원을 보고 게으른 농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잡초 있는 것을 참피하게 생각하는 감귤 농가도 있다. 제초제가 잡초뿐만 아니라 토양 미생물을 죽여 과일 품질을 낮추고 나도 조금씩 죽인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생각이다.

○ 감자 수확하기 좋은 날-6면



감자 수확하기 좋은 날 13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감자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